

양주,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경기북부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섬유종합지원센터>가 경기도 양주시에 들어선다.

양주시는 산북동 6824㎡ 부지에 섬유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11월29일 기공식을 갖는다고 11월25일 발표했다.

센터는 지하3층, 지상10층으로 2013년 완공 예정이다.

내부에는 지원관, 홍보관, 국제회의실, 패션쇼장 등이 들어서며 연구, 전시, 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양주시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같은 부지에 섬유 관련기업이 입주하는 기업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경기북부지역 섬유기업은 센터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화학저널 2011/11/28>